

사회

영광원전 방사능 대책 이대론 큰일

주민대피 범위 겨우 10km... 반경 30km로 확대해야

광주·전남북 지자체 원전 전문가·담당부서 신설도 시급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한국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방사능 누출사고시 주민대피 범위를 원전으로부터 10km로 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소 30k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영광을 제외하곤 광주·전남지역 모든 지자체에 원전 담당 전문가나 부서가 전혀 없어 비상시 대책이 전무한 점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10km로 정해진 탓에 10km를 벗어난 영광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방재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방사능 누출사고 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시간당 수십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농도의 성격상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산간이나 도서지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예방교육이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 등을 위해

서는 원전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경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에 현재 반경 20km로 발표된 주민 대피범위를 40km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전사고의 결과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태를 거울삼아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재난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주민대책위

원회 국장은 "현행 제도의 미비로 인해 원전 반경 10km를 벗어난 거리의 방재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한 뒤, "현행 비상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대피 훈련도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청년회와 농민회 등 영광주민 100여명은 지난 5일 영광 원전 앞에서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 방재대책 결의대회'를 가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방사능비 맞지 마세요” 미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우체국앞에서 '방사능 비와 핵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며 원전 안전대책을 철저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호기 파손 3년간 259건 광주 교통안전에 '빨간불'

노후화·사고 많아

광주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파손 건수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점검 및 대책이 절실하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교통신호기 파손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광주에서 교통신호기가 파손된 곳은 모두 259곳이었다. 이는 대구 36곳, 인천 44곳, 대전 43곳, 울산 9곳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이며 부산 462곳에 이어 전국 광역시 가운데 두번째다.

특히 타이머의 시간을 조정,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통신호를 분석·제어하는 장비인 교통신호제어기 관련 고장·파손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대구와 울산은 0건, 대전 3건, 인천 6건, 부산 12건에 비해 광주는 16건(전국 9위)을 기록했다.

전남은 교통신호기 파손 건수 241건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으며, 제어

기는 92건을 기록, 전국 4위였다. 전북은 각각 199건(전국 8위), 44건(전국 6위)이었다.

전국적인 교통신호기 파손 건수는 총 3678건이었으며 신호제어기는 1174건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는 노후화가 1377곳,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이 1152곳, 태풍·낙뢰·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이 512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전국 교통신호기 보수 비용만 연 평균 530억원으로 3년 동안 1600억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동규 의원은 "교통정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신호제어 필수장비인 교통신호제어기의 잦은 고장은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인사고로 번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협력, 신호제어기의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및 파손을 미리 예방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원침 (8287) 김종두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 광주남부경찰

광주남부경찰은 6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귀가하는 여성들의 손가방을 빼앗은 박모(27)씨와 강모(2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골목길에서 4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유모(여·57)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광주지역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00만원 가량의 사체를 갖기 위해 여행연습까지 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이날 새벽에도 범행 대상을 몰래 훔쳐다니던 중 비상 근무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술 마셨을 뿐인데...”

학교 공사비리 조사 광주시교육청 간부 “자살 기도” 소동... 야산 음주 실신 발견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던 광주시교육청 간부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신고가 접수한 해에 비상이 걸렸으나 음주 후 실신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6일 오후 2시 30분께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광주시교육청 3급 공무원 이모(5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화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발신 추적을 통해 추적한 끝에 야산에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이씨가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의혹과 관련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데다 현장에서 농약병이 발견되자 자살을 기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농약병은 별로 때 쓰려고 갖다 놓은 것이었고, 평소 안암이 높아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이씨가 묘에 따르면 남은 술을 과다하게 마시는 바람에 실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은 그는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조건만남' 절도 신고했다 성매매 몰통

“돈을 대가로 한 성관계인 '조건만남' 상대 남성을 만나 모텔에 투숙한 뒤 남성이 잠들자 돈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서 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김모(15)양은 지난달 25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박모(50)씨가 잠들자 현금 120만원과 금반지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김양은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박씨와 현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뒤 박씨가 잠든 사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미성년자인 김양과 성관계를 한 박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영광원전 1~6호기 안전점검

보해저축銀 대표 곧 소환

광주지검, 수천억 부실대출 확인

민간 전문가 등 30명 참여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원전 안전조사단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5개 분야에 걸쳐 영광원전 1~6호기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조사단은 올해로 수명이 20년이 넘는 영광원전 1, 2호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진·태풍 및 대형 지진·해일의 여파로 원전의 전력이 끊기고, 이에 따라 '노심용해'(핵연료봉이 녹는 현상)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현황을 살펴볼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광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는 영광지역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극미량의 방사성 요소가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여수 만흥동 주택 화재

지체장애 60대 숨져

6일 오전 11시20분께 여수시 만흥동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혼자 있던 주모(여·60·지체장애 1급)씨가 숨졌다.

이 불은 내부면적 50㎡를 태우고 소방서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확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검찰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보해 저축은행이 수천억 원대 부실 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은행의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천억 원대의 대출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목포 본점과 대표이사의 자택, 서울 지역 사무소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를 토대로 엄터리 담보 등을 통해 이뤄진 부실 또는 불법 대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만간 대표이사를 소환

하는 한편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상대로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실 대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대출 현황을 파악하는데, 확인할 내용이 많아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대검 중수부·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과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삼화저축은행(서울중앙지검)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전국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정희기자 choic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림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출강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역, 국가, 행정, 행정, 국어, 한문, 회화, 경찰, 교정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